공무원·건물주와 짜고 불법 증축 묵인·허위 감리보고서

건축사들이 불법 건축 앞장

'광주 원룸 불법' 건축사 71·공무원 16·건축주 81명 입건

건축물의 설계·감리, 사용 승인 절차 등 공적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건물주와 짜고 다가구 주택(원룸)의 불법 증축사실을 묵인하고 허위 감리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특히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가구 주택 건축 과정에서 4개 구청의 감독 공무원까지 가담, 이같은 범행이 이뤄져 건축물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절실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서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3)씨와 H건축사무소 대표 김모(49)씨를 대해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광주지역 4개 구청 단속 공무원 16명과 허위로 감리한 건축사 70명, 원룸을 불법 증축한 건축주 81명 등 총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공무원·건축사·건축주 유착관계=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건축물 지도 단속 과정에서 불법 증축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H건축사무소 김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시정조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김씨에게 부탁해 단속 무마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단속 공무원은 단속 후 위법 사항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는 허위로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건축사는 모두 71명으로, 현재 광주시 건축사회에 회원등록된 건축사(266명) 가운데 4명에 한 명 꼴로 범행에 가담한 셈이다.

◇입주자 생활 '악영향'=건축주들은 불법증축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려왔다. 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와 이웃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가구 수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차장법상(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 가구당 주차대수는 1대다. 그러나 주차장에는 원룸이 들어서 있었다. 이는 주차난으로 이어졌다. 소음 피해도 컸다. 옆집에 사는 입주민 간 소음으로 인한 말다툼도 잇따랐다.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의 허점=현행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제도는 건물 내외부에 대한 검사는 건축사가 맡고, 구청은 서류심사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다수 건축주들은 우선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불법 증축하거나 건축사와 짜고 서류상으로만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 사용승인을 받기도 한다.

건물주로부터 시공권을 따내야 하는 건축사와 시공사의 공생관계를 감안하면 건축사가 불법 건축을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불법증축사실을 구청이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불응하면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구청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표본지역을 선정해 점검을 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 단속 같은 행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단속 인력이 각 구청마다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광주지역 다가구주택 불법증축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각 구청별로 1~2건에 불과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모 고등학교서 결핵환자 11명 발생

9명은 같은 반 학생

광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 결핵(법정 3군 전염병) 환자가 집단 발생해 시 교육청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광산구보건소에 따르면 광주 A고교 학생 5명이 지난 8월에, 3명이 지난 11월에 결핵에 걸리는 등 이날 현재까지 이 학교에서만 11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다.

이 학생들은 2주간 격리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9명은 같은 반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교 인근 B고교에서도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개인위생 등에 소홀해 결핵 환자가 나타난 것 같다"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보건교육 등을 통해 추가 감염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구제역 돼지까지 확산

경북 이어 경기서도 발생 … 방역 비상

경북 지역에 이어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경기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구제역이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제역이 확산되자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구제역대책본부장을 2차관에서 장관으로 높이는 등 총력 방역체제로 전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의 돼지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경북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돼지 구제역은 소 구제역에 비해 1000~3000배가량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화를 통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경기도 2청사에 설치, 인력과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길태 무기징역 감형 '시끌'

피해자 부모 반발·누리꾼들 비난 쇄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김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결과가 있기도 했고,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상당하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검찰은 물론, 누리꾼들의 정신감정 선처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날 판결 이후 찬반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면서도 대부분 감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김에 의해 살해된 이모(13)양의 어머니 홍모(38)씨는 "무기징역이면 최대 20년 정도 형을 살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어떻게 내가 낸 세금으로 (김길태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나원참 〈8197〉 김종두

대마초 개그맨 전창걸 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43·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탤런트 김성민(구속)씨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 일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탈출 곰 9일만에 포획 … 건강 양호

쌍나팔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우리를 탈출해 청계산으로 달아났던 6살짜리 수컷 말레이곰 '꼬마'가 탈출 9일만인 15일 포획.

○…서울대공원은 "이날 새벽 5시 수색조가 청계산에 올라가 이수봉에 설치해 놓은 포획틀에 '꼬마'가 포획된 것을 오전 8시30분에 확인했다"고 발표.

○…포획 장소는 서울대공원의 포획작전 구역 내인 이수봉에서 청계사 방향 남측 200m사면으로, 잡힌 곰의 몸 상태는 건강하며 흥분상태를 진정하기 위해 마취 후 우리로 이동. /연합뉴스

민방위 훈련 멈춰선 차량 민방위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앞 도로변에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승합차에 인부 감금 혐의 40대 김 양식업자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자신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인부를 승합차에 감금한 황모(44)씨를 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이모(52)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식업자인 황씨는 선불금 2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이씨가 정해진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달아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

강완묵 임실군수 재소환 불법 선거자금 의혹 조사

강완묵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주지검 특수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천4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듣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